

# 시민의 삶 넘어, 안전보건까지 디자인하다

## 서울디자인재단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박여민 사진 박성희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컨설팅 문의 및 신청 방법

**중대재해예방실**  
전화 02-2046-0522~7  
**전국 지역본부 및 센터**  
협회 홈페이지 참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이라는 미션 아래 디자인을 통한 도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서울의 '세계 디자인 수도(WDC)' 선정,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 지정 등 서울이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도 중심 역할을 했다. 현재 서울 종로구의 서울디자인재단 본부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등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은 다양한 방면의 디자이너, 예술가, 창업자들의 활동의 장이자 일반 시민들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기능하고 있다.

2022년은 서울디자인재단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보건까지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한 해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이슈로 떠오른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서울디자인재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예방 활동 등을 수행했으며, 현장의 위험성 요소를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진행했다.

### 유해·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의뢰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통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 요인 제거·개선을 위한 계획(Plan) ▲개선 대책 실행(Do) ▲개선 효과 확인(Check) ▲개선 이행(Action)의 순환 체계 구축으로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재해예방실 컨설턴트는 서울디자인재단의 4개 사업장 현황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컨설팅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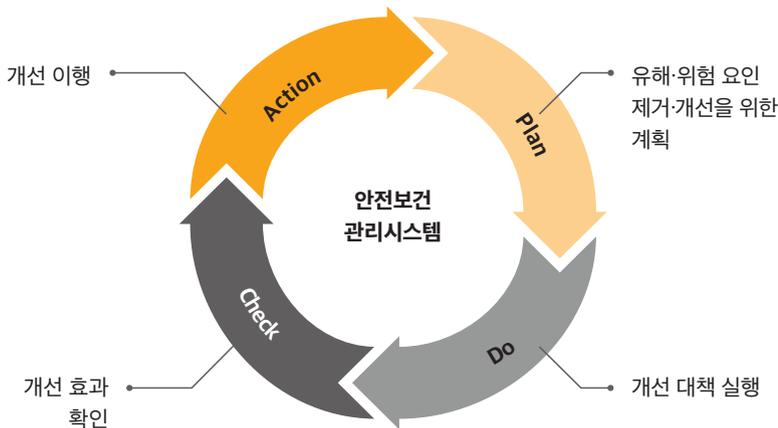
“서울디자인재단은 경영책임자의 리더십과 유해·위험 요인 파악 정도, 유해·위험 요인 제거 통제 등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산업재해 예방을



- ① 서울디자인재단 안전관리실 담당자들.  
(왼쪽부터) 김창만 책임, 강경남 실장, 하선영 선임,  
최주원 책임.
- ②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디자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 사업장 중 하나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디자인재단 위험성평가 방법(PDCA Cycle)**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형태**

서울시 출연기관

**소재지**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서울 중로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중구),  
서울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마포구)

**노동자 수**

160명



서울디자인재단은 보건·안전·소방 경고 표지 및 시설물 안내 등을 '서울표준형 안전디자인'에 따라 디자인해 사용하고 있다.

위한 우수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지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 체계화를 넘어 인식의 내재화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모토로 안전보건 경영에 힘쓰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진행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반 별도의 법률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DDP에는 이미 시설용역사를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지침도 마련돼 있었다. 안전관리실 강경남 실장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안전보건’은 중요한 테마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더 좋은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디자인재단이 오랫동안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요.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수용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특성을 살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한발 앞서 이슈에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번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기존에 마련돼 있던 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이미 익숙해져 무심코 지나칠 수 있던 현장의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현장의 개선안을 적극 수용해 직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일터,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디자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컨설팅에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우리 재단에 맞는, 우리만의 컨설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보다 우리 재단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한 방식으로 설계됐어요. 또한 사무직 직원들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포함해 2022년은 우리 재단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해였습니다. 시작하는 2023년은 이렇게 갖춰진 체계를 진짜 우리의 것으로 내재화하고, 현장에 정착시키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

#### Mini interview

### 안전관리실 강경남 실장

####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멤버입니다. 원래는 IT를 전공해 업무도 디지털미디어 분야로 시작했는데 본부와 DDP,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여러 사업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거쳐 지금은 이곳 안전관리실에서 재단의 안전보건을 총괄 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 Q.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현장을 돌러봅니다. 외장 판넬 모서리의 고무 패킹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위험한 공구에 덮개가 잘 덮여 있는지, 길바닥에 흠이 파인 곳은 없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보건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 Q. 향후 안전관리실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안전보건이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많이 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체계와 제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정리해서 현장별로 매뉴얼화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다중시설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시민 공간을 보유한 서울디자인재단도 노동자를 넘어 시민들의 안전보건까지 지키기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